

<2주차 강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시작하며

★ 차례

1. 철학, 인간을 말하다
2.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정체성과 학문의 역사
3.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중요한가?
4. 인본철, 출발점에 서서

1. 철학, 인간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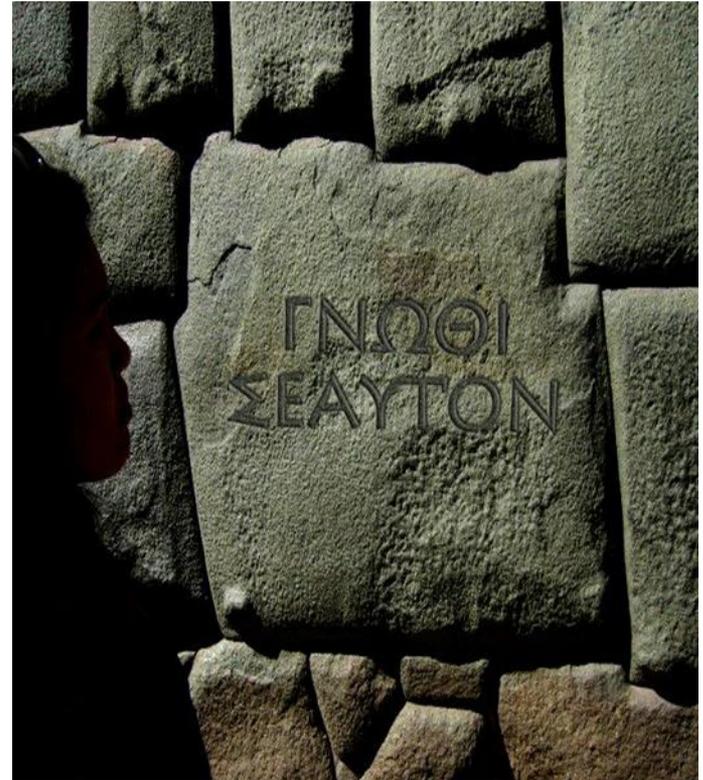
- 모든 학문은 '인간'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함.
- 그중에서도 철학은 인간학(Anthropology)이라 불릴 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한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음
- 철학은 인간 자신에 대한 참다운 앎을 추구하는 학문

1. 철학, 인간을 말하다

- 소크라테스 , “너 자신을 알라”(Gnoti Seauton)!

→ 무엇이 훌륭한 삶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 삶을 영위해나가는 주체로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

- 아우구스티누스 “인간은 바닥이 없는 심연과도 같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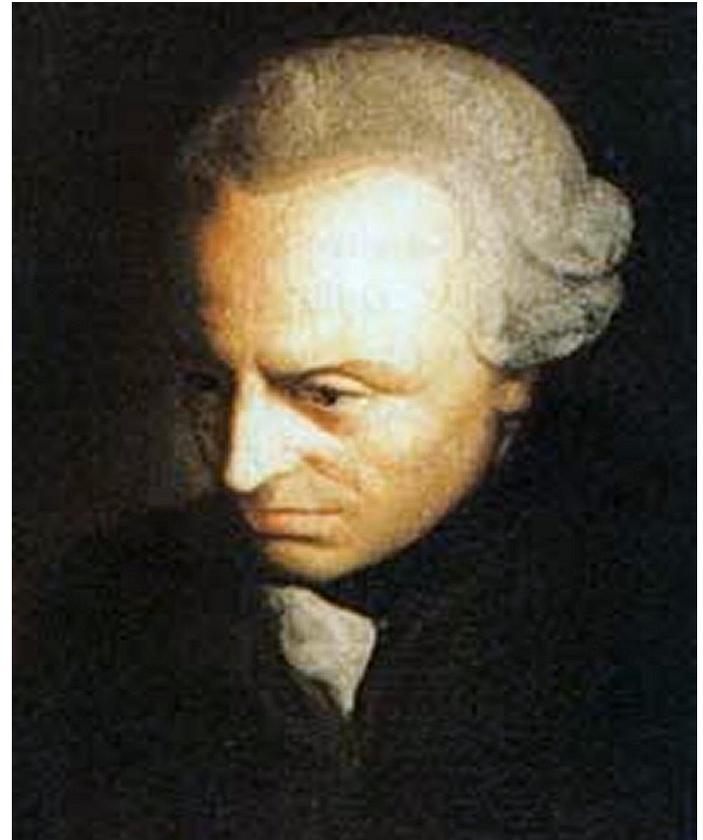
1. 철학, 인간을 말하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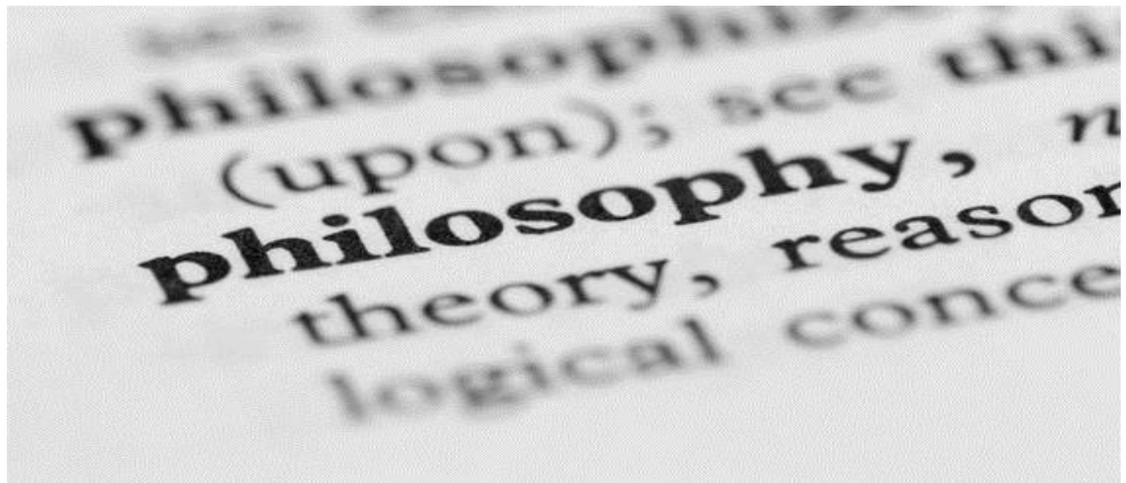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 칸트(I. Kant)의 철학적 문제의식, 구체적으로 '인식'과 '행위'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다양화시킨 것



1. 철학, 인간을 말하다

-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대상적) 지식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자신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확립하려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 철학적 물음은 일종의 주체적 물음이다. 따라서 철학은 주체의 결단을 견인하는 세계관, 가치관이다.



2. 철학이란 무엇인가

- 철학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

→ 철학의 어원을 통해서 본 철학정신은 곧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부합함

“파이드로스여, 누군가를 ‘지혜 있다’고 부르는 것은, 내가 보기엔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런 말은 신에게 적용하면 적절한 것 같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philosophos) 정도로 부른다면 보다 더 합당할 것 같네”

—플라톤, <파이드로스> 중에서

2. 철학이란 무엇인가?

(1) 철학의 어원[philosophia]을 통해서 본 철학정신

① 영원한 물음: 유한한 존재의 진리탐구의 정신

② 소유의 관점이 아닌 추구해나가는 '과정'의 관점 중시

2. 철학이란 무엇인가?

(2) philosophia는 왜 철학(哲學)으로 번역되었나.?

-19세기 일본의 최초 서양철학자 니시 아마네(西周, 1862-1865년까지 네덜란드 레이든에서 수학)가 송나라 주자의 『통서(通書)』 「지학(志學)」 제10의 명제에서 따옴.

“성인은 하늘을, 현자는 성인을, 선비는 현자를 희구한다.” 성희천(聖希天), 현희성(賢希聖), 사희현(士希賢) : 희현>희철>희철학>철학으로 차용됨.

- 동아시아 3국에서 philosophia에 대한 번역어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2. 철학이란 무엇인가?

(3) 철학의 정체성

- 원래 의미에서 '철학자'는 '학자'로, 이에 상응해서 '철학'은 '학문 일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철학'은 오늘날의 '학문'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개념 사용은 서양의 근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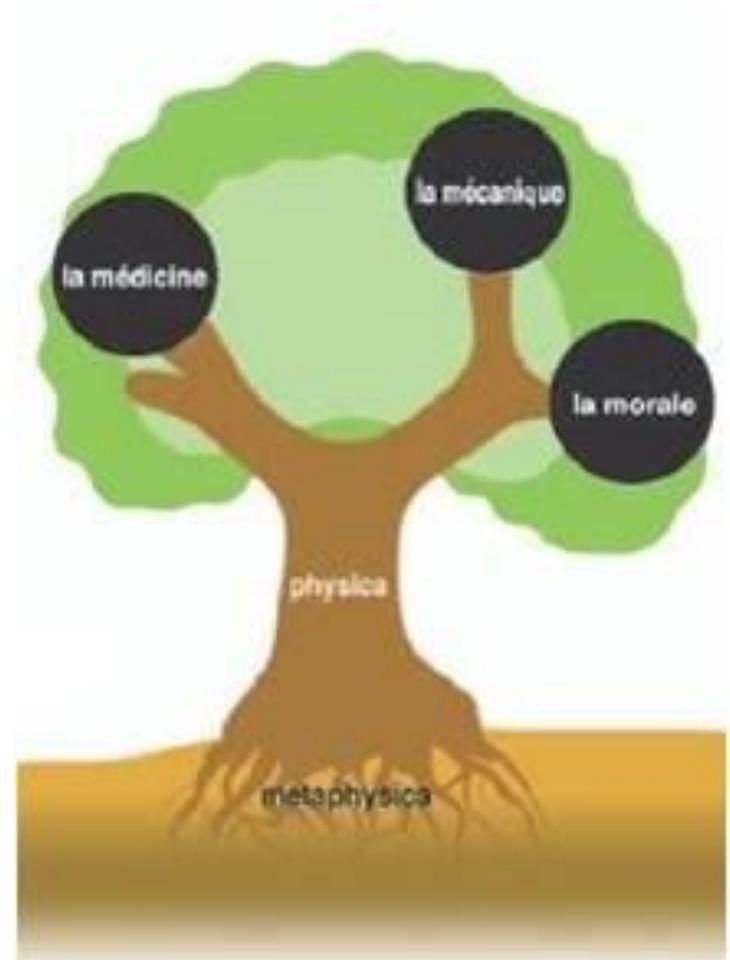
2. 철학이란 무엇인가?

(3) 철학의 정체성

★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철학을 나무에 비유할 때, 그것의 뿌리는 형이상학이요, 줄기는 자연학(물리학)이며, 가지들은 의학, 역학과 같은 학문들이다.”

metaphysica(초자연학(형이상학)) > physica(자연학(물리학))



2. 철학이란 무엇인가?

(3) 철학의 정체성

- '철학'의 의미변화는 근대적 의미에서 '과학'들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 I. New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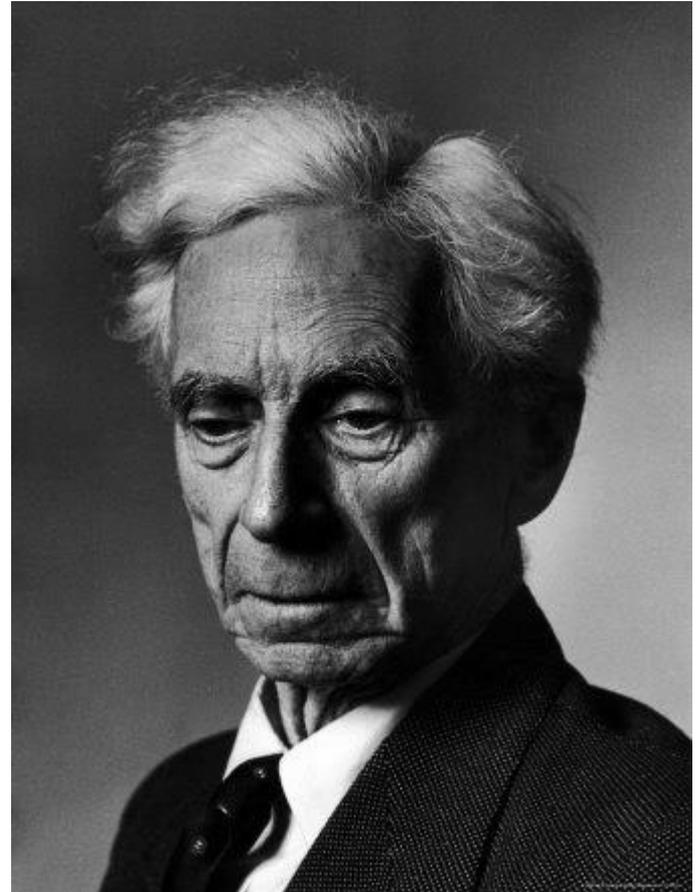
- 이제 science는 학문 일반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예) 학문(scientia, science) > 과학(분과학문(分科學問))

2. 철학이란 무엇인가?

(3) 철학,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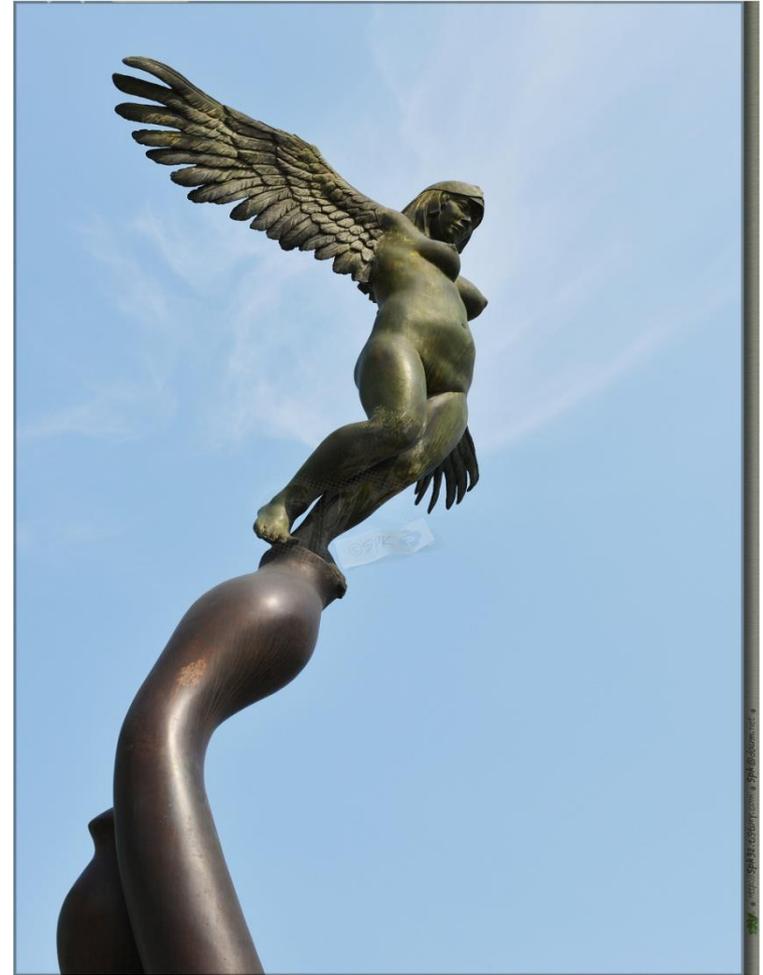
“인생과 세계에 대한 관념으로서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두 가지 요소의 산물이다. 하나는 종교적, 윤리적 관념이요, 다른 하나는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연구이다.



2. 철학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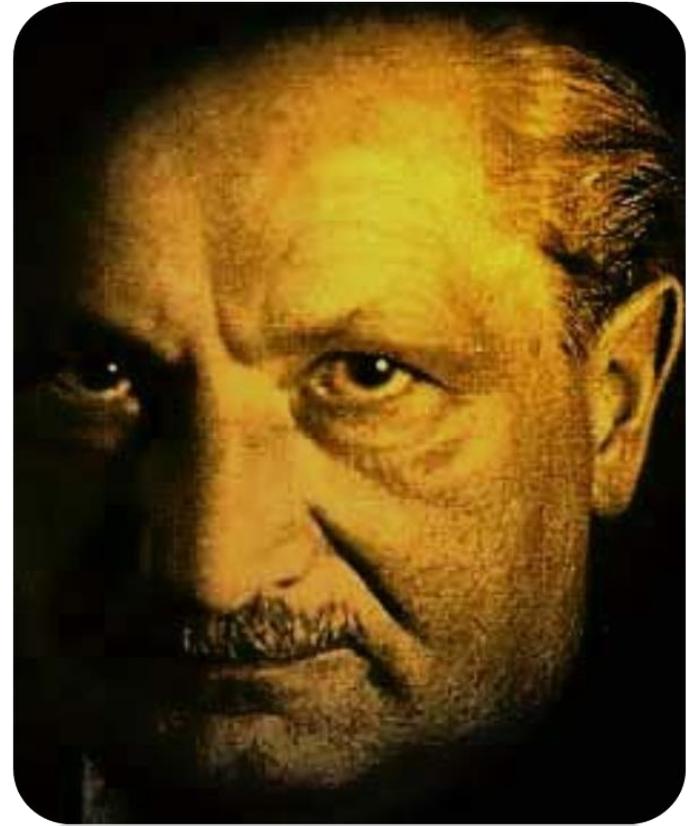
(3) 철학,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각 철학자들의 체계 속에 얼마만한 비율로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에 따라 크게 달랐지만, 그러나 이 두 요소가 어는 정도는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 철학의 특징이다. (.....) 내가 이해하기에는, 철학이란 신학과 과학 사이의 중간적인 것이다.”



3.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중요한가?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려진 적은 없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강력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제시된 때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무지한 때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인간이 문젯거리가 된 적도 없었다.”



3.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기술은 바깥세계를 겨냥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불의 사용이나 옷의 발명에서 보듯 우리는 먼저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식량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를 지어서 안전을 도모했다. 전화와 비행기가 거리의 벽을 무너뜨렸다. 항생제가 치명적 미생물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전면적 절차’를 밟고 있다. (...) 새로운 미개척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 조엘 가로, 『급진적 진화』 중에서

“300년 전 기술과 휴머니즘을 떼어놓았을 때,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이 둘을 함께 제자리에 되돌려놓을 때이다.” — 마이클 더투조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4. 인본철, 출발점에 서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묻는 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답하는 자이다.”